

日本の中等教育における家庭科カリキュラムの 現状と課題

牧野カツコ(お茶の水女子大 教授)

I. 日本の教育課程と小、中、高等学校の家庭科の概要

日本では、1945年第2次世界大戦の敗戦後の教育改革によって、男女共學と6・3・3・4の學校教育制度が定められた。日本では小、中、高校の教育課程は、文部省の定める學習指導要領によって定められており、戦後1947年以來ほぼ10年ごとに改訂されてきた。小學校の家庭科は、5年、6年に於いて男女共學の必修教科として、1947年から週2時間設置されている。家庭生活に必要な基礎的な知識・技能を身につけるための教科としてすでに50年以上の實績を持っている。初等教育段階で家庭科教育が男女に必修教科として行われている國は、世界的にもほとんどなく、日本の小學校での男女共學の家庭科の歴史は、誇りとすることができる。

中學校は、職業・家庭科が1958年に技術・家庭科となり、必修教科として今日に至っている。高等學校の家庭科は、選擇教科出合ったが、1973年度から女子のみ必修、1994年度からは、男女とも必修教科となって今日に至っている。

最も新しい學習指導要領は、1998年に大幅に改訂されたもので、學校週5日制の完全實施のために、大幅な教育内容や授業時間數の削減がされており、學校の自由裁量部分が增大するなど、大きな話題を呼んでいる。新教育課程は小學校、中學校では今年(2002年)4月からスタートしたばかりで、教科書も一新している。高等學校は2003年4月から、1年遅れてスタートする。高等學校の教科書は、1年あまりの時間をかけた検定が終了したばかりで、まだ、一般には販賣されていない。

Ⅱ. 中學校の技術・家庭科

1. 中學校家庭科教育課程の變遷

中學校の家庭科教育は戦争直後は「職業家庭科」と呼ばれていて、農業、商業、工業、家庭など将来の職業生活に必要な技能を男女それぞれ選擇で學んでいた。1958年に科學技術の振興政策のもとで、教科の名稱は「技術・家庭科」と變わり、學習指導要領に定める教育内容が、「男子向き」「女子向き」と、性によつて分けられ、男子は機械や電氣などの工的技術、女子は被服製作、調理などの生活技術の内容に區別された。日本はこの後、高度經濟成長の時代に入り、「男は仕事、女は家庭」という性別役割分業の體制が社會全體に浸透していった。技術・家庭科の男女別の學習によつて、男子は中學校以降、家庭生活について學ぶ機會を失い、家事、育児、介護など家庭で受け持つ仕事への男性の責任も失われてきたのである。その後、「男子向き」「女子向き」という言葉は批判をうけ、「技術系列」「家庭系列」という表現に改められ、學習指導要領の改訂の度に、男女が學ぶ領域の共通部分が少しずつ増えていった。

學習指導要領の上で、男女が學ぶ領域が完全に平等になったのは、1998年改訂の學習指導要領からすなわち、今年實施からである。

2. 中學校「技術・家庭」家庭分野のカリキュラム

1998年告示の學習指導要領では、中學校の「技術・家庭」の授業時間は、第1學年、第2學年で各70時間、第3學年で35時間。學習内容は次のようになっている。

〈表 1〉中學校技術・家庭の學習内容（1998年改訂學習指導要領）

技術分野		家庭分野	
A 技術とものづくり	B 情報とコンピュータ	A 生活の自立と衣食住	B 家族と家庭生活
(1) 生活や産業の中で技術が果たしている役割	(1) 生活や産業の中で情報手段の果たしている役割	(1) 中學生の栄養と食事	(1) 自分の成長と家族や家族生活とのかかわり
(2) 製作品の設計	(2) コンピュータの基本的な構成と機能・操作	(2) 食品の選擇と日常食の調理の基礎	(2) 幼児の發達と家族
(3) 製作に使用する工具や機器の使用方法及びそれらによる加工技術	(3) コンピュータの利用	(3) 衣服の選擇と手入れ	(3) 家族と家族關係
(4) 製作に使用する機器の仕組み及び保守	(4) 情報通信ネットワーク	(4) 室内環境の整備と住まい方	(4) 家庭生活と消費

(5) エネルギーの変換を利用した製作品の設計・製作 (6) 作物の栽培	(5) コンピュータを利用したマルチメディアの活用 (6) プログラムと計測・制御	(5) 食生活の課題と調理の応用 (6) 簡単な衣服の製作	(5) 幼児の生活と幼児とのふれあい (6) 家庭生活と地域とのかかわり
---	--	----------------------------------	---

(1)～(4)の項目は必修。(5)(6)の項目については、各分野ごとに、1または2項目を選択

これまで、「木材加工」「電気」「家庭生活」「食物」など、11領域に細分化されていた構成が改められ、大きく、技術分野と家庭分野に分けられた。家庭科教育の立場からすると、

教科書も分野ごとに分かれ、小中高校の一貫性、系統性をとりやすくなった。

これまでは、選択の領域となっていた、被服、住居、保育、を男女すべての生徒が基本を

学ぶことが出来るようになった。これまで被服製作や調理実習などの実技教育に力を入れてきた伝統があったが、授業時間の削減により、被服製作が大幅に減り、調理などの実習内容も少なくなった。

新学習指導要領の特徴は、自分自身の自立という視点が生まれ、衣食住の学習は単に技術の習得ではなく、生活に結びついて生かされることがねらいとなった。家族、家庭生活の内容が重視され、家族や地域の人々と実際にふれ合う学習がちりいれ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が特徴である。

Ⅲ. 高等学校の家庭科

1. 教育課程の変遷 —女子のみ必修の家庭科から男女共学の家庭科へ—

高等学校では、戦争直後は「職業・家庭科」という教科名で、男子も家庭科を選択して学ぶことができた。実際には、女子が学不が多かったが、1970年告示の学習指導要領から文部省は、家庭科を女子のみ必修の科目とした。女子が家庭科を学んでいる間、男子は柔道、剣道などの武道を行う体育の時間にあてられた。女子が将来、家事育児をしっかりと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がねらいであった。この、高等学校の女子のみ必修の家庭科については、1975年からの国連婦人の10年の期間中、国の内外から教育機会の男女差別として、多くの批判をあげた。日本が女子差別撤廃条約に調印し、1985年に条約を批准したことに合わせて、高等学校家庭科は、男女共学の方向が決定した。1998年の学習指

導要領で男女共學4單位必修が定められ、実際に實施されたのは1994年からである。

高等學校段階での家庭科の男女共學必修が定められた背景には、社會的な家族問題の増加に伴い保守派からの、家庭の教育機能の充實という期待と、女性運動の兩方の流れがあった。現在日本の家庭科教育は、制度的には、小學校から高等學校まで男女共學が實現し、世界的にも類のない充實した制度となっているといっていよいよだろう。

2. 高等學校家庭科のカリキュラムの現状

2003年から實施される高等學校家庭科は、「家庭基礎」2單位、「家庭総合」4單位、「生活技術」4單位、の3科目の中から、學校ごとに1つを選んで履修することとなった。

これまで3種類の科目があったが、すべて4單位であったのが、2單位の「家庭基礎」という科目が作られたために、これを選んで、授業時間を削減する高校がでてくる見込みである。

3科目のうちどの科目をどのくらいの割合で學ぶか、現在各學校で検討中で、まだ未定である。生活技術は工業高校などで選擇すると思われるが、ごくわずかで、大學進學に力を入れている高校では、2單位の科目となる見込みといわれている。

それぞれの科目の内容の概要は 表2 の通りである。

〈表 2〉 高等學校家庭科の科目と内容（1998年改訂學習指導要領）

家庭基礎(2單位)	家庭総合(4單位)	生活技術(4單位)
(1) 人の一生と家族・福祉	(1) 人の一生と家族・家庭	(1) 人の一生と家族・福祉
(2) 家族の生活と健康	(2) 子どもの發達と保育・福祉	(2) 消費生活と環境
(3) 消費生活と環境	(3) 高齢者の生活と福祉	(3) 家庭生活と技術革新
(4) ホームプロジェクトと學校 家庭クラブ	(4) 生活の科學と文化	(4) 食生活の設計と調理
	(5) 消費生活と資源・環境	(5) 衣生活の設計と製作
	(6) ホームプロジェクトと學校 家庭クラブ	(6) 住生活の設計とインテリア デザイン

この他選擇科目として、次のような科目を學校が自由に單位を設定して、設け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されている。家庭情報處理、消費生活、發達と保育、家庭看護、リビングデザイン、服飾文化、ファッションデザイン、フードデザイン、食文化、調理、栄養、など19の選擇科目が用意されている。

3. 高等学校家庭科の改訂の特徴

今回の改訂では、男女共同参画社会の推進、高齢化社会、少子化社会に対応する内容が重視されるようになった。人間の生涯にわたる発達の視点や、子どもや高齢者の福祉に関する内容が重視されるようになった。「家庭総合」では、高齢者の介護が加わり、介護の体験学習がふくめられたこと、生活文化の傳承と創造、などの内容が加わったことなどが新しい。女子のみ必修の家庭科の時代は、被服製作や調理の学習に多くの時間があてられていたが、男女共学となってからは、消費生活と資源・環境の問題、家族や自分自身の生活について学ぶ内容が増加してきている。

IV. これからの家庭科カリキュラムの課題

1. 生きる力を育てる

もともと、「家庭科」の教科の対象である「家庭」という言葉は、「生活」と「家族」とから成り立っていると考えることが出来る。シングルやデインクス(共働きで子どもなし)、あるいはひとり親家族、3世代、4世代家族など多様な家族が増加する中で、「家族」はかつてのように、両親がそろって子どもがいるというような形態を想定しては学習している生徒達の現実の家族に対応できなくなっている。家族の形はどのようなであっても、中学生高校生一人一人が、個人として自立して生きる力を育てることが、家庭科の役割であるといえよう。個人の生涯にわたる人間の発達について学ぶ内容は新しい学習指導要領にも取り入れられた。家族から個人へ力点は動きつつあるといえよう。

日本家庭科教育学会では、21世紀の家庭科教育のあり方として、①自立して生きる力を育てる、②共に生きる力を育てる、という2つの方向を示している。

「自立して生きる」ことの中に、何を、どのように、着たり、食べたり、住まったり、買ったり、捨てたりしたらよいか、衣食住についての知識や消費の問題、文化の問題が関係している。これからは、自分らしい生き方を、将来にわたって創造していくことが、より求められる時代となるであろう。

2. 共に生きる力を育てる

共に生きることの意味は家族や異年齢、異世代、異文化の人々とともに、また環境、

自然とも共存することを意味している。共に生きる力を育てることで、人は生涯にわたる人生をより豊かに、生きることが出来るであろう。

今後は、新しい教育家庭科の目標を実現するために、具体的にどのように授業を展開していけばよいか、家庭科教師の力量が問われているともいえる。生き方や、人生について学ぶ場合には、正解がないともいえる。教育方法についての研究は今後の課題でもある。

〈参 考 文 献〉

文部省「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技術・家庭編—」東京書籍 1999. 9

文部省「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家庭編」開隆堂出版 2000. 3

日本家庭科教育學會編「家庭科教育50年—新たなる軌跡に向けて—」建帛社 2000

<번 역>

일본의 중등교육에 있어 가정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

마키노 가츠코(오차노미즈여자대학교 교수)

I. 일본의 교육과정과 초·중·고등학교의 가정과 개요

일본에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교육개혁에 의거, 남녀공학과 6·3·3·4의 학교교육제도가 정해졌다. 일본에서는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을 문부성이 정해놓은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결정하고, 전후 1947년 이후 거의 10년마다 개정되어왔다.

초등학교의 가정과는 5학년, 6학년에 남녀 공통필수교과로 1947년부터 주당 2시간씩 배당되어 왔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과로서 이미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초등교육단계에서 가정과 교육이 남녀 필수교과로 이수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데,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남녀공통이수의 가정과 역사는 자랑할 만 한 것이다.

중학교는 직업·가정과가 1958년에 기술·가정과로 되었고 필수교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 가정과는 선택교과였다가 1973년도부터 여학생만 필수로, 1994년부터는 남녀모두 필수교과로 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학습지도요령은 1998년에 대폭 수정된 것으로, 학교 주5일제의 완전실시를 위해 교육내용이나 수업시간 수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고, 학교의 자유재량 부분이 확대되는 등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2년 4월부터 시작하였는데 교과서도 새롭게 바뀌었다.

고등학교는 2003년 4월부터로 1년 늦게 시작된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1년 남짓 시간을 들여 검토한 것으로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판매되고 있지 않다.

II. 중학교 기술·가정

1.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천

중학교의 가정과 교육은 전쟁직후는 「직업 가정과」로 불리며 농업, 상업, 공업, 가정 등 장래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남녀 각각 선택하여 배웠다.

1958년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교과명칭이 「기술·가정과」로 바뀌고 학습지도요령에서 정한 교육내용이 「남학생용」「여학생용」으로 성별에 따라 나뉘지면서 남학생은 기계나 전기 등의 공적기술, 여학생은 피복제작이나 조리 등의 생활기술의 내용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후 고도 경제성장 시대로 접어들어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가정에」라고 하는 성 역할분담의 체제가 사회전체에 침투하였다. 기술·가정과와 성별구분 학습에 따라 남자는 중학교 이후 가정생활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사, 육아, 간호 등 가정에 수반되는 일의 책임감도 잃게 되었다.

그 이후 「남학생용」「여학생용」이라는 단어도 비판을 받아 「기술계열」「가정계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고,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시에도 남녀가 학습하는 영역의 공통부분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었다.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남녀가 배우는 영역이 완전히 평등해진 것이다. 1998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부터로 2002년 올해 첫 시행인 것이다.

2. 중학교 「기술·가정」가정분야의 커리큘럼

1998년도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중학교의 「기술·가정」의 수업시간이 1학년, 2학년에 각각 70시간, 3학년에 35시간 배당되었다. 학습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중학교 기술·가정의 학습내용(1998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기술분야		가정분야	
A 기술과 물건제작	B 정보와 컴퓨터	A 생활의 자립과 의식주	B 가족과 가정생활
(1) 생활이나 산업에서 기술이 수행하는 역할	(1) 생활이나 산업에서 정보수단이 하고있는 역할	(1) 중학생의 영양과 식사	(1) 자신의 성장과 가족이나 가족생활과의 관계
(2) 제작품의 설계	(2) 컴퓨터의 기본구성과 기능·조작	(2) 식품의 선택과 일상식의 조리기초	(2) 유아의 발달과 가족
(3) 제작에 사용하는 공구나 기구의 사용방법 및 그에 따른 가공기술	(3) 컴퓨터의 이용	(3) 의복의 선택과 손질	(3) 가족과 가족관계
(4) 제작에 사용하는 기구의 조립 및 보수	(4) 정보통신 네트워크	(4) 실내환경의 정비와 주거방법	(4) 가정생활과 소비방법
(5) 에너지변환을 이용한 제작품의 설계·제작	(5) 컴퓨터를 이용한 마르치 매디아의 활용	(5) 식생활의 과제와 조리의 응용	(5) 유아의 생활과 유아와의 접촉
(6) 작품의 재배	(6) 프로그램의 계속·제어	(6) 단순한 의복제작	(6) 가정생활과 지역과의 관련

(1) - (4)의 항목은 필수, (5) (6)의 항목은 각 분야별로 1혹은 2

지금까지 「목재가공」, 「전기」, 「가정생활」, 「식생활」 등 11개 영역으로 세분화 되어있던 구성이 개정되어 크게 기술분야와 가정분야로 나뉘어 졌다.

가정과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도 분야별로 나누어져 초·중·고교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선택영역으로 되어있던 피복, 주거, 보육은 남녀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의복제작이나 조리실습 등의 실기교육에 치중하여온 전통이 있었는데 수업시수의 삭감에 따라 의복제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조리 등의 실습내용도 줄어들었다.

신학습지도요령의 특징은 자신의 자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의식주의 학습은 단순히 기술의 습득이 아닌 생활과 연결시켜 실제로 응용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가족과 가정생활의 내용이 중시되어 가족이나 지역의 사람들과 실제로 접촉하는 학습이 추가되었다는 게 특징적이다.

Ⅲ. 고등학교의 가정과

1. 교육과정의 변천 - 여학생만의 필수교과목에서 남녀 공통이수의 가정과로

고등학교에서는 전쟁직후 「직업·가정과」라고 하는 교과 명으로 남학생도 가정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학생이 배우는 경우가 많았다.

1970년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서 문부성은 가정과를 여학생만의 필수교과목으로 하였다. 여학생이 가정과를 배우는 동안 남학생은 유도, 검도 등의 무도를 익히는 체육시간이 주어졌다. 여학생은 장래 가사·육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교 여학생만의 필수 가정과에 대해서 나라 안팎으로부터 교육기회의 남녀차별이라는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이 여성차별 철폐조약에 조인하고 1985년에 조약을 비준한 것에 맞추어 고등학교 가정과는 남녀 공수의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1998년의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남녀 공히 4단위 필수로 결정되었는데 실제로 실시된 것은 1994년부터였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정과의 남녀공통 필수로 정해진 배경에는 사회적인 가족문제의 증가에 따라 보수파로부터의 가정교육기능의 충실이라는 기대와 여성운동이라는 양쪽의 기대가 있었다.

현재 일본의 가정과 교육은 제도적으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남녀공통이수가 실시되고있어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충실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2. 고등학교 가정과 커리큘럼의 현상

2003년부터 실시될 고등학교 가정과는 「가정기초」2단위, 「가정총합」4단위, 「생활기술」4단위의 3개 과목 중 1개를 학교에 따라 택하여 이수하도록 하고있다.

지금까지도 3종류의 과목이 있었으나 모두 4단위였는데, 2단위의 「가정기초」라고 하는 과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서 수업시간을 삭감하는 고등학교가 나오는 실정이다. 3개 과목 중 어느 과목을 택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우게 될지는 현재 각 학교에서 검토 중이어서 결정되지 않았다. 생활기술은 공업고등학교 등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극히 일부 만이고 대학진학에 힘을 기울이는 고등학교에서는 2단위 과목으로 선택할 움직임이다.

각각의 과목 내용과 개요는 <표 2>와 같다.

<표 2> 고등학교 가정과의 과목과 내용(1998년 개정 학습지도 요령)

가정기초(2단위)	가정총합(4단위)	생활기술(4단위)
(1) 사람의 일생과 가족·복지	(1) 사람의 일생과 가족·가정	(1) 사람의 일생과 가족·복지
(2) 가족의 생활과 건강	(2) 아동의 발달과 보육·복지	(2) 소비생활과 환경
(3) 소비생활과 환경	(3) 고령자의 생활과 복지	(3) 가정생활과 기술혁신
(4) 홈프로젝트와 학교가정 클럽	(4) 생활의 과학과 문화	(4) 식생활의 설계와 조리
	(5) 소비생활과 자원·환경	(5) 의생활의 설계와 제작
	(6) 홈프로젝트와 학교가정 클럽	(6) 주생활의 설계와 인테리어 디자인

이외에 선택과목으로서 다음과 같은 과목을 학교가 자유롭게 단위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가정정보처리, 소비생활, 발달과 보육, 가정간호, 리빙 디자인, 복식문화, 패션 디자인, 푸드 디자인, 식문화, 조리, 영양 등의 19개 선택과목이 구비되어 있다.

3. 고등학교 가정과 개정의 특징

이번 개정에서는 남녀 공동참여 사회의 추진, 고령화 사회, 소자녀사회에 대응할 내용이 중시되었다. 인간 생애에 걸친 발달시점이나 아동이나 고령자의 복지에 관한 내용이 중시되었다. 「가정총합」에서는 고령자 보살핌이 첨가되고 고령자 돌보기의 체험학습이 포함되었다는 것 등이 새롭다. 여학생만의 필수교과의 가정과 시대에서는 의복제작이나

조리 학습에 많은 시간이 할당되었으나 남녀공통이수가 되고 나서 소비생활과 자원·환경문제, 가족이나 자신의 생활에 관해서 배우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

IV. 지금부터의 가정과 커리큘럼의 과제

1. 살아갈 힘을 기르기

원래부터 「가정과」의 교과대상인 「가정」이라는 말은, 「생활」과 「가족」으로부터 생겼다 라고 할 수 있다. 독신이나 덩크족, 혹은 편부모 가족, 3세대, 4세대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은 앞에서와 같이, 양친이 모두 있고 아이도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규정해서는 현실의 학생들 가족에 대응할 수 없게 된다. 가족의 형태는 어떤 것이든 중·고등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개인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정과의 역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개인의 생애에 걸친 인간발달에 관해서 학습하는 내용은 새 학습지도요령에서도 거론되었다. 가족으로부터 개인으로 그 역점이 옮겨졌다 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가정과 교육학회에서는 21세기의 가정과 교육의 본연의 자세로

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

②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자. 라고 하는 두 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립하여 살아가는」것의 가운데는, 무엇을, 어떻게, 입고, 먹고, 거주하고, 사고, 버리면 좋을까, 의식주에 관한 지식이나 소비문제, 문화의 문제가 관계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자기다운 삶의 방식을 장래에 걸쳐 창조해 가는 것이 보다 추구되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2.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는 가족이나 다른 연령 대, 다른 세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환경,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사람은 생애에 걸쳐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교육가정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전개해 가면 좋을지, 가정과 교사의 역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방식이나 인생에 관해 배우는 경우에는 정답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는 이후의 과제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문부성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 기술·가정 편」 동경서적 1999.9

문부성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 가정편」 開隆堂출판 2000.3

일본 가정과교육학회 편 「가정과교육 50년- 새로운 궤도를 향하여」建帛社 2000

〈要 約〉

日本中等家庭科教育課程的現狀與課題

牧野カツコ(お茶の水女子大學校 教授)

日本文部省所發布的“學習指導要領”中規定從小學到高中的教育內容。最新學習指導要領規定，小學和中學從今年四月份開始試用新教育課程，高中從2003年四月份開始試用新教育課程。

從1946年開始，在小學5、6年級男女共修家庭課。教學內容包括植物、服裝、消費生活、家族等基本的內容。

中學家庭課1958年改為“技術·家庭”課。男生學機械、電業等理工技術；女生學服裝、烹調等生活技術。隨着“學習指導要領”的改革，男女生所學的教育內容呈逐漸趨于一致的趨勢。

據1998年所發布的“學習指導要領”，中學“技術·家庭”課的教學時數為，在1、2年級各70學時；3年級35學時。教學內容男女同為如下：技術領域(1. 技術與制作 2. 信息與電腦)；家庭領域(1. 生活的自立與衣食住, 2. 家族與家庭生活)

新學習指導要領的特点是，以自立心的培養為核心，培養學生實際生活能力為其教育目標。因此重視家族、家庭的生活內容以及與家族、社區市民的實際接觸。男女生共修原為選修的服裝、居住、保育等內容。但是，由于教學時數的縮短，服裝·烹調等方面的實習時間也變得短了。

據1970年所發布的“學習指導要領”，只有女生必修家庭科。為了解決男女生教育機會不平等的問題，1998年的“學習指導要領”改革為男女生共同必修家庭科四個領域的內容。實際上是1994年已經開始實行此項規定的內容。

從2003年開始，高中家庭課在“家庭基礎”兩個單位，“家庭總合”四個單位，“生活技術”四個單位中每個學校根據實情選一個領域開課。由于增加了“家庭基礎”這麼一個領域，有些學校可能縮減教學時數。

這些領域一般都涉及如下內容：(1)人的一生和家族·家庭；(2)高齡人的生活和福利；(3)生活的科學和文化；(4)消費生活和環境。

未來社會變化呈如下特點：男女社會參與的平等化，社會的高齡化，社會的少子女化。新修訂的家庭教育課程為了適應社會的變化，在課程中強調對子女的教育和高齡人的福利。比如，“家庭綜合”領域中增加了看護高齡老人的實習內容和對生活文化的傳承與創造。

為了實現新家庭教育目標，應重新思考具體的教學方法和家庭師資的培養與任用問題。

「일본의 중등교육에 있어 가정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채 정 현(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오늘 마키노 가츠코 교수님은 “일본의 중등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하에 일본의 시대 배경에 따른 가정과 교육의 목표, 내용, 이수대상, 이수시간, 이수방법, 미래과제 등을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류하여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시어 가정과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발표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의 가정과 교육과정은 유사한 면이 많다. 특히 가정교과가 의, 식, 주의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위한 교과로 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점, 농업·상업·공업과 같은 직업 교과의 대열에 속해왔던 점, 「기술·가정」같이 학문적 배경이 다른 교과가 병합된 점, 역사적으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점, 하지만 최근에는 남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의복제작이나 조리실습 등의 실기 교육의 내용이 대폭 줄은 점을 포함하여 가정을 이수하는 시수의 축소 등이 비슷하다.

다른 점으로는 일본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실과가 아닌 가정교과가 있다는 점, 고등학교에서 가정과목이 남녀 필수 과목인 점, 그리고 19개의 선택과목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인데 모두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교과 내용에서 중학교의 경우는 중학생들의 발달단계의 특징 중의 하나인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의, 식, 주의 기능과 현대가정의 요구에 맞게 가족관계 형성 및 소비생활을 강조한 점 그리고 유아에 대한 이해 및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관지은 점은 특이할 만하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가정 기초」에서는 가족 및 소비생활을 「가정총합」에서는 아동과 고령자에 대한 보살핌, 「생활기술」에서는 의, 식, 주생활의 기능에 초점을 두어 대학진학을 위한 학교에서는 가정교과의 교양 교육 측면을,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가정

교과의 직업 교육 측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적절하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키노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항목에 따라 간략하게 토론하고자 한다.

I. 일본의 교육과정과 초·중·고등학교의 가정과 개요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제는 6·3·3·4로 우리 나라와 같다. 또한 가정과 교육에서도 가정과목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점, 중학교에서 「기술·가정」과목이 있는 점, 그리고 최근에 교육내용이나 수업 시간에 변화가 있고 학교의 재량활동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와 유사하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가정 교과가 실과가 아닌 단독 교과로 존재한다는 점과 고등학교에서 가정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과라는 점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것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기술과 가정이 병합교과로 오래 전부터 이수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II.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변천, 현황, 개정의 특징

일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58년부터 중학교에서 기술과 가정이 병합교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술·가정」교과를 탄생하게 하는 데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초기에 이 교과에서 남학생은 기술 계열을 여학생은 가정계열을 배우다가 현재는 남녀가 함께 학습하는 영역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어떤 영역을 어떻게 배우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기술과 가정이 때로는 병합교과로 때로는 통합교과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 사회에서 여성들이 섬유회사, 의류회사, 또는 식품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의, 식, 주와 관계한 지식습득 및 기능을 연마하는 데 교육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기술과 차별화를 두지 않은 데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의 일본의 「기술·가정」에서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닌 생활의 자립을 위해서 의식주에 관계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있다. 즉 졸업 후에 가정분야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의식주에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개인 및 가정인이 지녀야 할 밑바탕으로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의식주와 관련된 지식과 기

능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나이에는 자립심을 형성하는 발달특성이 있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서도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단원명을 중학생의 발달 특성(정체성, 자립심, 관리, 관계)에 맞추어 “나는 정체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나?”, “나는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나?”, “나는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나?”, 그리고 “나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나?”라는 문제로 나누어 가정교과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나는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나?”의 단원에서는 학생이 혼자서 밥을 짜고 음식을 만들며 의복을 손질하고 제작하며 실내환경을 정비하고 꾸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의 특성 및 요구를 잘 반영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적용할 만하다고 본다. 즉 단순히 생활의 기술이라는 단원에서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또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수단을 배우기 위해서 등의 뚜렷한 목적하에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58년부터 지금까지 「기술·가정」교과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어 왔는 지, 일본의 가정과 교사들과 가정교육학자들은 이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기술과 가정교과를 분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지, 원한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노력을 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났는 지를 알고 싶다. 일본에서 「기술·가정」교과를 오랫동안 실행하면서 생긴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은 우리 나라에서 「기술·가정」교과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고등학교의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천, 현황, 개정의 특징

일본에서 1985년 이후 고등학교에서 가정과가 남녀 공수의 방향으로 결정지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1994년 이후부터 가정과가 남녀공통 필수로 정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배경에는 가정교육의 기능을 중시하는 보수파의 노력과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여성 운동의 힘이 컸다고 한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도 가정교과를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필수교과로 이수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교육의 학문적 노력뿐만 아니라 힘을 실을 수 있는 정치적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철학자, 사회학자, 정치가, 교육자 등은 현대 가족 및 사회 문제의 핵심이 가정내 교육에 있기에 가정내 교육이 잘 되었을 때 현대의 가족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가정내 교육을 학교의 가정과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발표자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가정과교육이

초기의 음식 만들기와 바느질하기 등의 실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라는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가정교과에서 실기를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실기만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서의 교과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정교과의 이미지를 실기 위주의 교과에서 현대 가족 및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가정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중심교과로 변화하기 위해서 학문적인 노력과 정치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부터 실시될 고등학교에서 가정이 「가정기초」, 「가정총합」, 「생활기술」의 3개 과목에서 1개를 택하도록 한 것은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학생에게 적합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우리도 본받을 만하다. 하지만 단위에 있어서 모두 같이 4단위로 통일하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러한 단위배정으로 말미암아, 마키노 교수님의 말씀대로 실업계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2단위인 「가정기초」를 선택할 것이다. 그 외에 가정과 관련된 19개의 선택과목이 구비되어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이 과목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

일본의 새로운 고등학교 가정과에서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복지와 그들에 대한 보살핌이 체험학습에 포함되어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산업사회 이후에 다양한 발달특성을 지닌 세대가 모인 가정내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따스한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의복제작이나 조리 실습보다는 소비생활과 자원·환경문제, 가족생활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데 이는 현대 가정의 기능을 적절하게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도덕성은 도덕교과에서, 가족 및 소비문제는 사회교과에서, 성교육은 생물교과에서, 영양과 건강은 체육교과에서 다루고 있기에 타교과와 구별된 가정교과의 고유성 및 정체성을 의, 식, 주와 관련된 기능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인문계 고등학교의 가정교과에서 실기위주의 교육을 한다면 가정교과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왜냐하면 각종 학원 및 문화센터, 텔레비전 등에서 학교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실기 중심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기에 반드시 학교에서 그러한 교과를 이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과교육에서 실기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과 시간에 실기를 가르칠 충분한 시간이 없다면 재량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실기를 배우는 목적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정교과의 정체성을 행복한 가정 및 가족인을 키우기 위한 교과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가정과교육을 받았기에 보다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이 중

심을 두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교과에서 결정한 목표, 학습 내용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확고히 하여서 타교과와 중복된 내용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내용을 가르쳐야하는 뚜렷한 이유로 타 전공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정교육학 철학의 정립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가정과 교육과정의 미래과제

마키노 교수님의 말씀대로 미래의 가정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혼자의 힘으로 자기다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고 다른 연령, 다른 문화, 다른 세대, 다른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길러 주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사회학자인 김태길(1989)은 한국의 이상적인 가정상을 가족의 구성인이 자기다운 모습으로 혼자의 힘으로 살면서 자신 외에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였는데 일본의 가정과교육은 이러한 이상적인 가정상을 추구하고 있어서 교훈이 된다.

이러한 과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정교육학이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가정학회에서는 가정학의 사명은 개인과 가족의 자아형성을 성숙하게 하고 사회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루는 데 깨어서 협동하게 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였고(Brown & Paolucci, 1979) 실제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가정과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 과제를 추구하게 된 철학적·학문적·사회적인 근거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달성 후에 나타날 가정적·교육적·사회적인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겠다.

<참 고 문 헌>

김태길(1989). 성숙한 시민 개방된 사회. 나산 출판사.

Brown, M.M. & Paolucci, B.(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要 約〉

關於「日本中等教育中家庭教育課程的現狀與課題」的討論

蔡 貞 賢(韓國教員大學校 教授)

今天，卷野勝子教授以“日本中等教育中家庭教育課程的現狀與課題”為主題，對日本各個時代的家庭教育的目標，內容，授課對象，課堂時數，授課方法，未來課題等問題，分中學和高級中學做了詳細的概括，對家庭教育提出了很多寶貴的意見。

據發表所知，韓國和日本的家庭課程有很多類似的地方。家庭課是以衣，食，住等對家庭生活所必須的基礎知識和技能為主要內容的具有50多年歷史的學科；家庭課跟農，商，工等科目一樣屬於職業科目；「技術·家庭」為例與其他領域學科的整合；發展初期只以女生為授課對象；最近改革為男女生共同必修；由實技教育內容的減少所引起的家庭課課堂時數的減少等這些是韓國家庭教育也經歷過或是正經歷的現象。

與韓國不同的內容是：小學開設了家庭課；在高中男女生共修家庭課；有19個自選科目等。

在教科內容中，值得關注的是，在中學為培養學生的獨立性，強調了衣食住技能·家族關係與消費生活；強調對幼兒的理解；聯繫家庭與社區等內容。又值得我們借鑒如下的內容：高中的「家庭基礎」中強調家族和消費生活；「家庭綜合」中強調了對兒童和高齡老人的照看；「生活技術」中把重點放在衣·食·住生活；在普通高中強調家庭教育的修養教育；在職業高中強調家庭教育的職業教育。

就象卷野勝子教授所講的那樣，未來的家庭教育課程應把重點放在培養學生獨立的生活能力，培養與不同年齡的人，不同文化，不同環境共生的能力與力量。這些又是全世界的家庭教育學所要追求的方向。為追求這些方向，我們應研究哲學的根據與具體的方法和由此能夠出現的教育與社會效果。

〈要 約〉

「日本の中等教育の家庭科教育課程の現況と課題」

についての 討論

蔡 貞 賢(韓国教員大學校 教授)

牧野先生の発表は、日本の中等教育の家庭科教育課程の現況と課題についてであり、日本の時代の流れによる家庭科の教育目標、内容、履修の対象、履修の時間、履修の方法、未来の課題などを、中高校を分けて発表しており、理解しやすく、家庭科教育に重要な示唆点を提供していた。

発表の内容から分かるように韓国と日本の家庭科教育課程は似ている点が多い。特に家庭教科が衣・食・住の家庭生活に必要な基礎知識や機能を教える教科として50年以上続いてきたこと、農業・商業・工業のような職業教科の分野であったこと、「技術・家庭」のように、学問的な背景の違う教科の併合、歴史的に女性向きの科目だったことなどである。また、最近単女共に習っていること、衣服の制作や調理実習などの実習教育の縮小を含む家庭授業時間数の縮小なども似ている。

違う点として、日本では小学校から家庭教科の名で教えており、高校では家庭科目が男女必修科目であること、そして19個の選択科目があることなどであり、これらはみんな望ましいことだと思う。

教科の内容の中で、中学生の発達段階の特徴の一つである自立心を増やすための衣・食・住の機能と、現代家庭の要求に合う家族関係の形成および消費の生活を強調したこと、幼児の理解及び家庭と地域社会を連関したことは珍しいことである。また高校の場合、「家庭基礎」では家族及び消費の生活を、「家庭総合」では児童と高齢者の介護を、「生活技術」では衣・食・住の機能に集中して、大学進学を目標とする学校の場合は、家庭教科の教養教育の側面を、実業高校の場合は家庭教科の職業教育の側面の目的を達成する機会を與えており、望ましいと思う。

牧野先生の主張通りに、将来、家庭科の教育課程は学生たちの自らの力で自分なりの生き方を持てる力を増やし、自分のまわりの外の年齢、文化、世帯、環境と共に生きていくために力を注ぐべきである。このような課題は日本だけではなく、全世界的な家庭教育学の進める方向でもある。そして、この課題を追求する哲学的な根拠と達成する具体的な方法と、達成後に出てくる教育的・社会的な効果に關しての研究が必要となるだろう。